

THE GILLETTE COMPANY SAGA

GILLETTE UNFORGETTABLE MEMORY



— KING OF MEMORY —

FERDINANDO FREGA

GILLETTE, 잊을 수 없는 기억

THE SYSTEM · 06

내가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엔지니어가 아니다. 건축가도 아니다. 건설업자도 아니다. 기
껏해야 나는 그저 프리메이슨 단원일 뿐이다 — 61세에 배움에 굶
주린 도제.

이 사가를 읽기 시작해 절반쯤 이르면, 당신들 대부분은 이것이
Gillette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 사람의 경력에 관한
이야기. 어쩌면 전직 매니저의 자서전이라고까지.

당신들은 틀릴 것이다.

읽는 사람은 누구나 표면만 보게 될 것이다.

이 사가는 면도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기업에 관한 것이 아니다.

경영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성공에 관한 것조차 아니다.

이것은 기억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사라질 운명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변한다.

시장은 변한다.

기술은 변한다.

사람은 늙는다.

집은 빈다.

사진은 바랜다.

서류는 잊힌다.

이름조차 먼지가 된다.

기억만이 끝까지 싸우는 유일한 것이다.

망각에 맞서 쓰인 모든 책은 하나의 저항 행위다.

지켜 낸 모든 기억은 시간에 대한 승리다.

들려준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단순한 선언이다.

“이것은 존재했다.”

THE GILLETTE COMPANY SAGA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팔기 위해서가 아니다.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람들과 장소들, 관계들과 지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언젠가 아무도 순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알고리즘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매달 방문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숫자는 거의 다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기억은 여전히 세대를 건널 수 있다.

어쩌면 손주 하나.

어쩌면 낯선 사람 하나.

어쩌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

그들은 한 페이지를 펼칠 것이다.

한 문장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오래전 누군가가 하나의 흔적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념비가 아니다.

제국이 아니다.

동상이 아니다.

하나의 기억이다.

인간은 권력으로 살아남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야기로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야기는 누군가 그것을 지키기로 마음먹을 때에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 왕에게는 왕좌가 없다.

군대도 없다.

왕국도 없다.

그의 영토는 기억이다.

그의 국경은 추억이다.

그의 도시는 이야기다.

그의 시민은 잊히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다.

Gillette 사가의 끝에는 어떤 남자도 남지 않는다.

어떤 브랜드도 남지 않는다.

성조차 남지 않는다.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질문뿐이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가 전체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존재한다.

한 번에 한 페이지씩.

한 번에 한 삶씩.

한 번에 한 기억씩.

기억의 왕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기억은 남는다.

Ferdinando